
“고유가 상황의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2026. 4.



관 계 부 처 합 동

(국토부, 재경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금융위, 인사처)

순 서

I. 추진배경	1
II. 추진방향	2
III. 세부 추진대책	3
1. 승용차 이용 억제	3
2. 대중교통 공급 확대	5
3. 출퇴근 수요 분산	7
4. 대국민 캠페인	9
IV. 향후 추진계획	10

I. 추진배경

- (유가 상황) 중동전쟁 발 유가 급등*으로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발령**
(4.2) 이후 지속 등락하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상황

* ('26.2.27 → 4.22, \$/B) Brent : 72.5 → 101.9 / WTI : 67.0 → 92.9

**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기준 : 관심(3.5) → 주의(3.18) → **경계(4.2)** → 심각

※ (V 지시사항) 국토부가 주관하여 대중교통 혼잡방안을 마련할 것(4.30 기한)

- (대중교통 수요) 전체 교통량 중 버스과 철도 등이 차지하는 비중(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코로나로 감소 후 '22년부터 증가 추세

- 대중교통 일 평균 통행량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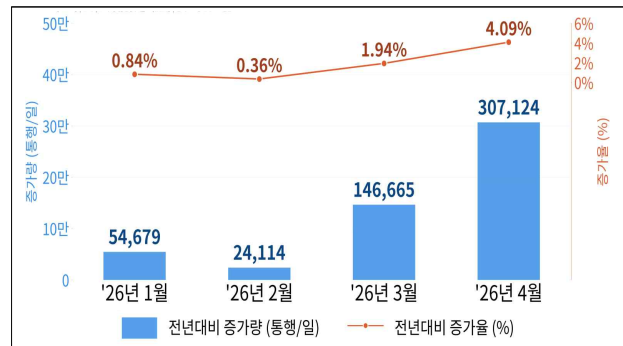
* (일평균 통행량) 19.7백만회('23) → 20.2백만회('24) → 20.7백만회('25)

- 최근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은 전쟁 개시 이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년대비 비교해도 4.09% 증가하여 3·4월 상승세가 뚜렷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19~'23) >

* 인·km 통행량 기준



< 전년대비 출퇴근 통행량 변화('26) >

- (혼잡도) 대중교통 통행량 증가 추세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현재 도시철도 및 버스 혼잡도도 전쟁 전 대비 다소 증가하는 추세

- (도시철도) 3월초 대비 4월 최고혼잡도 상승(178.5% → 183.7%,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150% 초과 구간도 증가('3월초 11 → '4월초 30개, 서교공 기준)

* (주요 혼잡 구간) **2호선** 사당↔방배, **7호선** 철산↔가산디지털단지, **9호선** 노량진↔동작 등

- (버스) 3월초 대비 4월초 서울 출퇴근 탑승객은 2.7% 증가(180→185만/일), 혼잡도 150% 초과 구간도 전년 대비 증가('25.4280 → '26.4319개)

☞ 고유가 장기화 우려 속에서 지속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수요 분산 필요

Ⅱ. 추진 방향

미션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권 보장

목표

**대중교통 이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고
쾌적한 출퇴근 대중교통 환경 조성**

추진 방향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세부 과제

▲ 차량 부제를 통한 승용차 수요의 대중교통 전환

- 공공2부제, 공영주차장5부제
- 승용차 부제 강화 검토하고, 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할인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확대
- 버스전용차로 연장 검토

▲ 친환경 차량 전환 가속화

- 전기버스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 운수사 전기·수소버스 구매용자 신설

▲ 지하철, 시내·광역버스 증차

- 지하철 혼잡구간 증회 및 차량 증차
- 버스 혼잡노선 증회
- 배차간격 단축 위한 지하철 신호시스템 개편

▲ PM, DRT, 공공자전거 등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

▲ 지방권 교통인프라 확충 추진

추진 방향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세부 과제

▲ 출퇴근 시간 외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 확대

- 모두의카드 환급률 상향
- 대중교통 혼잡 현장점검
- 대중교통 운임 시스템 개선

▲ 출퇴근 시간 유연화

-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활성화
- 민간부문 유연근무제 권고

▲ 범부처 캠페인 추진(국토부)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출퇴근 혼잡완화
- ▲ 차량부제 및 대국민 에너지 절약 동참 캠페인(기후부)
- 친환경 운전하기, 근거리 걷기 등 행동지침 홍보

▲ 건강증진을 위한 보도이용 및 대중교통 활용 캠페인(복지부)

Ⅲ. 세부 추진대책

< 대책 추진방향 >

◆ 대책은 ①승용차 억제, ②공급 확대, ③출퇴근 수요 분산, ④캠페인으로 구성

◆ 시행시기 별 ①선제조치, ②즉시조치, ③심각단계 조치, ④근본대책으로 구분

선제	대책 발표 전 우선 시행	즉시	대책발표 후 수일 내 시행
심각	원유 자원안보위기 '심각' 발령시	근본	중장기적 제도개선 등

1. 승용차 이용 억제

◇ 차량 부제 등을 통해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이전하고, 장래 고유가 등 위기상황 대응 위해 친환경 차량 전환 가속화

□ (차량 부제^{기후부})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승용차 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

○ (선제) 공공차량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4.8}

- ▶ (시행방법) 홀수일에 자동차 끝번호 홀수차, 짝수일에 끝번호 짝수차량 운행 가능
공영주차장은 자동차 끝번호 숫자에 따라 요일제 방식으로 출입 제한
- ▶ (점검강화) 매일 1회 청사주차장 외 인근 단속 및 격주 1회로 실적 보고
- ▶ (제재강화) 1회: 경고, 2회: 제재 및 기관장 통보, 3회: 징계

○ (심각) 승용차 부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되, 원유 수급 상황과 민생 영향 등 종합 고려하여, 필요시 민간5부제 등 시행 검토

□ (보험료 할인^{금융위}) (즉시) 차량 5부제 참여시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율 하락 감안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신설

□ (불법주차 등 단속^{국토부·행안부}) 차량 부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제 이행, 주차장 인근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등 현장관리 강화

○ (선제)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등 지방정부 협조 요청^{4.8}

- 주차장 운영질서 확립 및 주민 불편 없도록 적극적 단속조치 요청

○ **즉시** 차량부제 등 이행실태 현장점검 추진^{4.13~24}

- 지방청사, 민원다발 예상지역 등에 대해 국토부·행안부에서 현장점검 실시하고, 불법사행 발생 시 경찰·지방정부 집중 단속 등 강화

○ **심각** 필요시交通安全 전담 인력 등이 불법주차 현장 수시 점검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국토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출퇴근시간 혼잡 완화 활동 유도

* 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에서,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물에 시장이 매년 부과

○ **즉시** 부제·유연근무·시차출근 등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항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별 감면제도 컨설팅 실시

○ **근본** 민간의 차량 수요 감축활동에 대해 부담금 감면 혜택을 충분히 제공토록 감면 기준 유연화* 등 제도개선 추진(조례 개정)

* 1) 現) 일정기간 이상 감면활동 유지시 감면 → 改) 감면활동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2) 現) 일부지역 재택근무시차출근 등 미감면 → 改)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 다변화

□ **(버스전용차로 연장^{경찰청·국토부})** 유가 상황 심각 시, 장거리 출퇴근 승객 대중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구간 연장 검토

* (현황) 구간: 평일양재IC~안성IC(58km), 휴일양재IC~신탄진IC(134km) / 시간: 07~21시

○ **심각** 경부선 평일 종점을 안성IC → 천안JCT까지 연장(58km→81km)하고, 필요시 시간 연장(예: 07~21시→06시~22시)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 추진 검토

□ **(친환경차량 전환^{기후부·국토부})** 승용차 대비 연료사용량이 많은 버스를 전기·수소차량으로 전환하여 원유사용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

○ **(선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안정적 지원 및 운수사 전기·수소버스 구매용자 통해 운수사 비용 부담 경감^{기후부, '26.3~}

- **근본** 사업용 차량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 마련^{국토부, '26.上}

2. 대중교통 공급 확대

◇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도시철도, 시내·광역버스 등 증차**하고, DRT, PM, 공공자전거 등 **대체 이동수단도 활성화**

- **(철도 증편^{국토부·지방정부})**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 위주로 우선 증편하고, 시내버스 파업 대응에 준하여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선제)** 서울 2·7호선 중 최대 혼잡도가 150%에 달하던 구간(사당↔방배, 철산↔가산디지털단지)에 **18회 증회**^{4.13~}
 -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 열차 **4회**(평일, 327회→331회) **증회**하여 혼잡도 완화(147%→약 120%대)^{4.7}
 - **(즉시)** 경인선(1호선 동인천~용산) 급행열차를 활용하여 출퇴근 수요가 많은 대방·신길·개봉·동암·제물포 등 5개 역에 정차를 확대(일 15회)
 - **(심각)** 유가 상황 고려하여 필요시 지방정부 협조로 시내버스 파업에 준한 집중배차 및 예비 전동차 운용 추진(서울·인천·경기)
 - * '26.1 서울버스 파업 시 집중배차시간 연장 및 172회 증회 / 예비 15편성도 활용
 - **(근본)** 김포골드라인(최대 혼잡 183.7%)은 **5편성 추가 증차**(총 510억원) 위해 **국비 153억원** 한시 지원^{'24~'26}
 - * 1단계로 6편성은 증차 완료('25) / 2단계로 5편성은 '26년 국비 지원 및 증차
 - 서울 4·7·9호선(최대 혼잡 183%)은 **8편성 증차**(총 1,025억원)를 위해 **국비 256억원** 한시 지원^{'24~'29}
 - * 4호선(3편성, 30량), 7호선(1편성, 8량), 9호선(4편성, 24량)
- **(버스 증편^{국토부·지방정부})** 혼잡 완화가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증차 추진하고 지역별 혼잡분석 및 수요조사 토대로 단계적 증편 실시
 - **(선제)** 서울시 버스 중 혼잡도가 높은 **196개 노선***에 **증회(4회/일) 완료**^{4.3}
 - * 2312번(상암동~길동 구간), 361번(흑석동~대방역 구간) 등 주요 혼잡노선

- **즉시** 광역버스는 지방정부 수요를 반영하여 출·퇴근시간 혼잡노선에 대한 전세버스 한시 증회 추진
 - * 수원·양주 등 혼잡도가 높은 9개 노선(27회)을 중심으로 우선 증회를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협의완료 노선부터 단계적 증회 추진
- **심각** 필요시,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도시철도 파업에 준한 시내버스 등 집중배차*하고(수도권), 고속·시외버스도 수요조사 통해 증회 추진
 - * '25.12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 시 시내버스 집중배차시간 1시간 연장 및 2,538회 증회하고 예비차량 1,422회 증회 추진
- **근본** 출퇴근 혼잡 심한 간선축 위주로 일반버스 대비 정시성이 높은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을 확충
 - * BRT 종합계획*을 수립^{'26.下}하고, 성남~복정BRT 등 신속 추진^{'27}
-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개편^{지방정부·국토부})**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기술(CBTC) 도입하여 배차간격 단축(^{운전시각}150초 → 90초) 통해 선로용량 확대
- **근본** 신림선 도입 완료, 우이신설선 개량 계획 등으로 향후 지방정부가 2·9호선 등 추가 개량 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 지원 추진
 - * '26년 기준 예산 564억원 편성, 서울 3·4호선 신호 시스템(ACT) 개량 등에 일부 활용 예정
- **(지방 교통시설 대폭 확충^{국토부})** **근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을 통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권 사업을 대폭 확대^{'26.下}
 - * 광역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광역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장기 사업계획
- **(공유이동수단^{국토부})** **즉시** PM·공공자전거 등 활용도 제고 위해 수요 맞춤형 기기 배치 실시하고, **근본** PM법, 자전거법 등 제도화 추진
 - * PM 7개 업체, 기기 약 21만개 / 공공자전거 기기 약 21만개(지방정부 관리 6.9만대)
- **(TAGO 활성화^{국토부})** **근본** 대중교통 이용편의(대기시간 축소, 환승정보 확인 등)를 위해, 신규모빌리티 수단(DRT 등), 지방정부 BIS정보 TAGO 추가 연계* 추진
 - * 161개 지방정부가 BIS를 구축했고, 그 중 15개는 TAGO와 미연계
- **(기타^{국토부})** 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확충,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등
 - **근본** 교통 소외지역 지원 위한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근거 마련(4.2일 국토위 의결), DRT 운영지역 확대('26.6 발의) 등 여객자동차법 개정

3. 출퇴근 수요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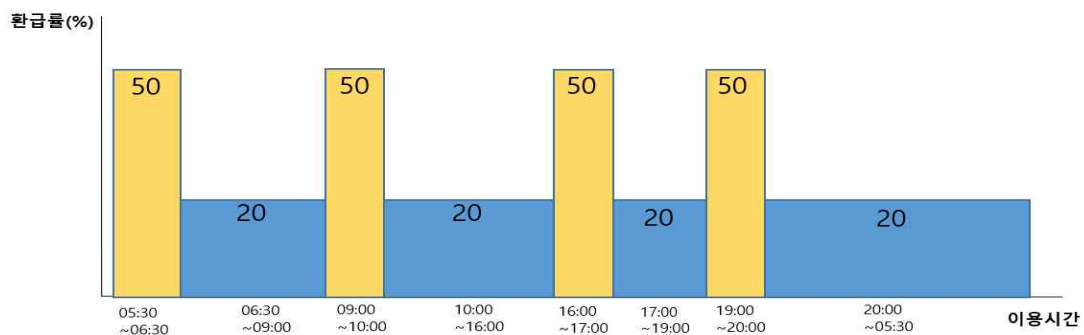
◇ 출퇴근 시간 외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을 유연화하여 타 시간대로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

□ (모두의카드 인센티브^{국토부}) (선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시차시간*을 설정하여 50~83.3%까지 추가 인센티브 부여^{4월~}

* (출퇴근시간) 6:30~9시, 17~19시, (출퇴근시차시간) 5:30~6:30, 9~10시, 16~17시, 19~20시

① 정률제 : 출퇴근 시차시간(4차례 지정)에 환급률 30%p 인상

- 출퇴근 시차시간 : 5:30-6:30, 9:00-10:00, 16:00-17:00, 19:00-20:00



② 정액제 : 환급 기준금액을 50% 일괄 인하(반값 「모두의카드」)

* (일반국민) 수도권 6.2 → 3만원, 일반 지방권 5.5 → 2.7만원 등

③ 시스템 개선 :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시스템 증설 및 인력 추가, 병행 작업 등을 통해 5월 초(5.8)까지 시스템 개선 등 사전준비 철저

□ (공공부문 출퇴근 유연화^{인사처·행안부·재경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적극 추진

○ (선제) 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출장·행사 자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등 에너지절약 관련 복무관리 안내^{4.2~}

* 총 161.3만명 : 중앙 약 75만 / 지방정부 약 32만 / 공공기관 약 42.7만 / 지방 공공기관 약 11.6만

○ (즉시) 시차출퇴근제 최소 30% 적용 권고

* 다만, 우편·청소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업무 제외 등 기관 사정에 맞추어 조정

○ (심각) 시차출퇴근제 권고비율 50%로 확대, 재택근무 적극 권장

□ **(민간부문 출퇴근 유연화^{노동부})** 효과적인 출퇴근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민간부문에도 유연·재택근무 적극 권고 및 참여 독려

○ **(선제)** 유연근무에 대한 공감대 확산 위해 경제단체 등 민간 협조 요청

- 노동부-국토부 합동, 유연근무 확산 위한 민간기업 간담회* 실시^{4.24}

* 노동부장관 주재로 IT 분야 포함 민간기업 등이 참석하여, 유연근무 우수 기업의 경험 공유 및 유연근무 활용 관련 건의사항 등 청취

○ **(즉시)**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장려금·시스템·컨설팅 안내자료 등 배포

○ **(심각)** 시차출퇴근 장려금 지원 대상 한시 확대 추진

* 현재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에 한해 시차출퇴근 지원

□ **(대중교통 운임 시스템 개선^{국토부})** **(선제)** 수도권 대중교통 운송 및 정산 사업자* 참여한 'AI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 고도화 TF(가칭)' 구축**

* 지하철 13개 기관, 버스 5개 기관 / 정산사업자(티머니, 이동의즐거움, 마이비, 한페이시스, iM유페이)

**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개편 관련 운송·정산사업자 회의 개최 (4.9)

○ **(근본)** 정책 수요에 따른 유연한(flexible) 요금 정책 적용을 위해 정부 주도로 AI 기반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구축

* 운송사업자마다 개별 관리되는 혼잡도 등 통행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도록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

□ **(환승센터 구축확대^{국토부})** 광역철도 확대, GTX 등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라 역사 혼잡 완화 및 환승시간 단축 위해 환승센터 구축 확대

○ **(근본)**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26.下} 통해 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

□ **(혼잡 현장점검^{국토부·지방정부})** 전국 광역· 시내버스 및 지하철 혼잡상황을 자체점검토록 하였으며, 현장점검 통해 불편 해소 추진

○ **(선제)** 전국 버스, 지하철 운영기관에 혼잡도 점검 및 자체조치 요청^{4.8}

○ **(즉시)** 특히 혼잡도가 심한 지역은 국토부·지방정부·전문가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불편사항에 대해 조치 실시

4. 대국민 캠페인

◇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대중교통 활성화 + 출퇴근 혼잡완화를 국토부와 기후부 중심으로 캠페인 추진

○ (국토부) **즉시** 대중교통 활성화 + 출퇴근 혼잡완화 전체 캠페인

* (도로공사, 코레일 등) 도로전광판 2,650여개, 철도역 전광판 5,500여개 등 약 8,150개 활용

**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과 시차출퇴근제에 따른 추가 혜택도 함께 홍보

<혼잡완화 캠페인 포스터>	<모두의카드 혜택 홍보>
국가 자원안보 위기 대응을 함께해요! 고유가 시대 대책 ② 지하철 - 반드시 황색선 바깥 쪽에서 대기 - 승객이 먼저 내린 후 탑승 - 압사 위험 예방을 위해 혼잡도 확인 후 탑승	모두의카드 6개월간 '반값' 4월~9월 까지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 30%p 더 할인

○ (기후부) **선제** 차량부제 및 대국민 에너지 절약 동참 캠페인 추진

*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운전하기, 근거리는 걸거나 자전거타기 등 행동지침 홍보

<승용차 5부제 포스터>	<에너지절약 동참 캠페인>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승용차 5부제에 동참해주세요! 1.6 이하, 2.7 이하, 3.8 이하, 4.9 이하, 5.0 이하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실천을 위한 국민행동 - 유연근무 활성화하기 - 출퇴근시 카를 활성화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가까운 거리는 걸거나 자전거 타기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table border="1"> <tr> <td> 이동할 때 승용차 5부제(요일제) 준수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운전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거나 자전거 타기 </td> <td> 회사에서 적정 실내온도 준수 (난방 20℃, 냉방 26℃) 불필요한 조명 끄기 샤워시간 줄이기 주먹장 에너지계사, 도스마스 절약 계산기 활용하기 </td> <td> 가정에서 자취시간(오후 6시) 가전제품 효율적으로 이용·절약하기 전기차·휴대폰 충전시간 늘리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기, 조명은 LED로 교체하기 소수전 선풍기,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기 </td> </tr> </table>	이동할 때 승용차 5부제(요일제) 준수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운전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거나 자전거 타기	회사에서 적정 실내온도 준수 (난방 20℃, 냉방 26℃) 불필요한 조명 끄기 샤워시간 줄이기 주먹장 에너지계사, 도스마스 절약 계산기 활용하기	가정에서 자취시간(오후 6시) 가전제품 효율적으로 이용·절약하기 전기차·휴대폰 충전시간 늘리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기, 조명은 LED로 교체하기 소수전 선풍기,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기
이동할 때 승용차 5부제(요일제) 준수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운전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거나 자전거 타기	회사에서 적정 실내온도 준수 (난방 20℃, 냉방 26℃) 불필요한 조명 끄기 샤워시간 줄이기 주먹장 에너지계사, 도스마스 절약 계산기 활용하기	가정에서 자취시간(오후 6시) 가전제품 효율적으로 이용·절약하기 전기차·휴대폰 충전시간 늘리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기, 조명은 LED로 교체하기 소수전 선풍기,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기		

○ (복지부) **즉시**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활성화 캠페인

* 대중교통 이용+도보출근 인증 건강챌린지, 261개 보건소 통한 걷기의 건강효과 홍보

○ (문체부) **즉시** KTV국민방송, 공공기관 보유매체 등 통해 수시 송출

* 보유 및 협업매체 8,000여개 등 활용

IV. 향후 추진계획

* 9개부처 4개분야 32개과제

구분	과제 목록	시행시기	소관
1. 승용차 이용 억제	① 차량부제 ○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필요시 민간 5부제도 검토	선제(4월) 심각 단계	기후부
	② 차량부제 실효성 확보 ○ 차량부제 참여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신설 ○ 지방정부 협조요청 및 현장점검	즉시(5월) 선제(4월)	금융위 국토부 행안부
	③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차량 이용 감축 유도	선제(3월)	국토부
	④ 버스전용차로 연장 ○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시간 연장 고시 개정 검토	심각 단계	경찰청 국토부
	⑤ 친환경 차량 전환 ○ 전기·수소버스 구매용자 신설 ○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 마련	선제(3월) 근본('26.上)	기후부 국토부
	① 철도증편 ○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 증회(평일, 4회, 4.7~) ○ 서울 2·7호선 혼잡구간 증회(18회) ○ 경인선 5개역 증회(15편성) ○ 김포골드라인('27.上), 서울 4호선('27), 7호선('28), 9호선('29) 증차	선제(4월) 선제(4월) 즉시(5월) 근본('27.上)	국토부
2. 대중교통 공급 확대	② 버스 증편 ○ 광역 시내버스 한시 증차 추진(수요조사, 지방정부 협조 진행) ○ 공주~세종 BRT(1단계), 전주 BRT 구축 ○ 성남~복정 BRT(1단계), 세종~천안 BRT(1단계), 제주 BRT 구축 ○ DRT 운영 범위, 운행지역 확대 추진(여객법 발의) ○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도입(여객법 개정)	즉시(5월) 근본(12월) 근본('27.下) 근본('26.下) 근본('26.下)	국토부
	③ 지방 교통시설 대폭 확충 ○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마련	근본('26.下)	국토부
	④ 공유이동수단 ○ PM법 제정 및 자전거법 개정 추진	근본('27.上)	국토부 행안부
	⑤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개편 ○ CBTC 신호 시스템 적용	근본('34)	국토부
3. 출퇴근 수요 분산	① 모두의카드 혜택 ○ 혜택 강화 및 출퇴근 시간에 따라 인센티브 신설	선제(4월)	대광위
	② 출퇴근 유연화 ○ 공공부문 유연근무 권고 ○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최소 30% 적용 권고 ○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비율 50%로 확대, 재택근무 권장 ○ 민간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협조 당부 ○ 민간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안내자료 등 배포 ○ 민간 시차출퇴근 지원 대상 한시 확대	선제(4월) 즉시(4월) 심각 단계 선제(4월) 즉시(4월) 심각 단계	인사처, 재경부, 행안부 노동부
	③ 대중교통 운임 시스템 개선 ○ AI기반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구축	근본('26.下~)	국토부
	④ 환승센터 구축 확대 ○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근본('26.下)	국토부
	⑤ 혼잡 현장점검 ○ 대중교통 운영기관 별 혼잡도 분석 및 자체점검 ○ 혼잡지역 현장점검	선제(4월) 즉시(5월)	국토부
4. 대국민 캠페인	① 대중교통 활성화 및 출퇴근 혼잡완화 범부처 캠페인 ○ 부처별 특성에 맞게 범부처 캠페인 추진	즉시(4월)	범부처 합동

참고

시행단계별 추진대책

구분		선제	즉시	심각	근본
1. 승용차 이용 억제	① 차량부제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승용차 부제 강화 검토, 필요시 민간5부제 등 검토	
	② 부제 실효성 확보	지자체 협조요청·현장점검	부제 참여 시 차 보험료 할인	불법주차 현장 수시 점검	
	③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감면제도 활용해 차량 감축	감면제도 홍보 강화		감면 기준 유연화 등 추진
	④ 버스전용차로 연장			구간·시간 연장 검토	
	⑤ 친환경차량 전환	전기·수소버스 구매용자 추진			사업용 차량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
2. 대중교통 공급 확대	① 철도 증편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 증회(평일, 4회), 서울 2·7호선 혼잡구간 증회(18회)	경인선 5개역 증회(15편성)	파업에 준한 도시철도 집중 배차	김포골드라인('27.上), 서울 4호선('27), 7호선('28), 9호선('29) 증차 지원
	② 버스 증편	시내버스 혼잡노선 한시 증차	광역버스 혼잡노선 한시 증차	파업에 준한 도시철도 집중 배차	BRT 노선 확충
	③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CBTC 신호 시스템 적용
	④ 지방 교통시설 확충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⑤ 공유이동수단		수요맞춤형 기기배치 등 회전을 극대화		PM 기본법 제정 추진
	⑥ 기타				DRT활성화 시와 고속버스 필수노선
3. 출퇴근 수요 분산	① 모두의카드 인센티브		기준금액 인하·출퇴근 시간에 따라 인센티브 신설		
	② 공공부문 출퇴근 유연화	유연근무 권고	시차출퇴근 최소 30% 적용 권고	시차출퇴근 비율 50% 권고, 재택 권장	
	③ 민간부문 출퇴근 유연화	유연근무 협조 요청 민간기업 간담회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배포		시차출퇴근 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추진
	④ 운임 시스템 개선				실시간 요금적용 시스템 구축
	⑤ 환승센터 구축 확대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⑥ 혼잡 현장점검	혼잡도 자체점검 실시	국토부-전문가 현장점검		
4. 캠페인	① 범부처 대국민 캠페인	차량부제, 에너지절약 캠페인	대중교통 활성화 캠페인 (도로·철도역 전광판 및 공영매체 등 활용)		